

광주시의회, 사상 첫 광주TP 원장 지명 철회 요구

2차례 걸쳐 도덕성 검증 자료 요청...김범모 후보, 개인정보 이유로 거부
시의원들 “검증 받기 싫으면 물러나라” 질타...임명 강행 시 갈등 예고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장에게 김범모 광주테크노파크(TP) 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2015년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강 시장이 임명을 강행하면 집행부·의회간 갈등이 촉발될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김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과 직무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후보자의 핵심 자료 제출 거부로 두 차례 정회 끝에 청문회를 중단하고, 만장일치로 '후보자 지명 철회'를 결정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회 보좌진과 중앙당 정책위 전문위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처 경제 재정 정책 전문가로 성장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나 본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필순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10월 22일과 1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며 3가지 핵심 자료가 미제출됐음을 알렸다.

요청 자료는 ‘자녀 초·중·대학 입학·전학·졸업 현황’, ‘후보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최근 5년간 금융 거래 현황’,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재직증명서·사업자 등록 내역’ 등이었다.

김 후보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제출이 곤란하다”며 “배우자와 자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강수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2년 박홍근 원내대표 정책특보로 재직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배우자 자료 제출을 거부해 파행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다른 사람을 검증할 땐 잣대를 들이대고

본인이 검증받을 땐 그 잣대를 거두느냐”며 “국민의 검증을 받기 싫다면 스스로 물러나라는 것이 당시 입장 아니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박 위원장은 오전 11시께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질의를 시작하기 어렵다”며 1차 정회를 선포했다.

오후 2시에 속개된 회의에서도 김 후보자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배우자 과거 재직 현황이나 소득 증명은 찾기 어렵고, 금융 거래 내역은 사생활과 관련돼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기보다 법령에 따른 제한을 설명드린 것”이라며 “의원님들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거듭 말하자, 박수기 의원은 “개인 의견과 ‘생각이 다르다’는 말로 지방의회의 정당한 요구를 가볍게 넘기는 태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강수훈 의원은 “원장 공모 당시 인사청문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원했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런 수준의 자료 제출까지는 처음 지원할 때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알고 있었다면 지원했겠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결국 위원회는 오후 4시께 10분간 2차 정회에 들어갔고, 논의 끝에 청문회 중단을 결정했다.

박필순 위원장은 “자료 미제출은 지방의회의 도덕성 검증을 거부하는 것이며, 의회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후보자는 기관장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시장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예상되는 모든 혼란과 정치적 책임은 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한 뒤 산회를 선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특위의 지명 철회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법적으로 보장된 임명권을 행사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등이 18일 오후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주·대구 달빛동맹 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두 도시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정부·국회에 전달 할 메시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달빛동맹’ 광주·대구시, 신산업·도시재생 등 공동과제 심의

‘달빛동맹 2.0’ 개편 청사진 확정...35개 과제 진행 공유도

광주시와 대구시가 18일 광주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광주·대구 달빛동맹 발전위원회’를 열고 협력 의제를 대폭 확대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두 도시는 기존 공동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산업과 도시재생, 재난대응을 아우르는 11건의 신규 과제를 심의·의결해 ‘달빛동맹 2.0’의 개편 청사진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9월 국회에서 발표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동선언 이후의 후속 채널로, 군공항 조기 이전과 산업별 특별관 운영, 자원봉사·문화예술 교류 등 5개 분야 35개 과제의 진행도를 공유하며 실행력 점검에 방점을 찍었다.

현장에서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공동 메시지 퍼포먼스를 병행해 대정부 설득의 토대를 마련했다. 두 도시는 인공지능 전환(AIX) 거점도시 조성

과 AI 융합 핵심인재 공동 양성으로 미래 성장의 축을 삼고,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공동 의제 발굴로 기업 생태계 저변을 넓히기로 했다.

이와함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실험을 겨냥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이전기관·지역금융간 거래 확대를 묶어 권역 균형을 견인하기로 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도심 하천 친수공간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 기록 선교유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재난·재해 시 인력·물자 상호지원, 노인회 연계 교류사업도 연동해 사회적 안전망과 문화적 연대를 보완한다.

광주시는 내부적으로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 협의체’ 등 원스톱 행정 경험을 공유해 인허가·재

정·대정부 협상에서의 병목을 줄이고, 대구시는 금호강 르네상스와 연계한 수변 도시재생 모델을 접목해 공동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경제계 교류는 상공회의소를 축으로 기업 주도의 B2B 네트워크를 상설화해 투자와 인력 매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달빛동맹 발전위원회는 정례회의와 실무회의를 통해 신규 과제의 로드맵과 재원·제도 설계를 순차 확정하고, 연내 정부·국회 대상 합동 건의로 예산·법령 반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회의로 달빛동맹의 협력 의제와 추진 체계가 한층 구체화됐다”며 “대정부 아젠다를 함께 만들고 현장 집행까지 동행하는 ‘실행형 동맹’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방평가 라운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지역 갈등 초래 우려”

나광국 전남도의원

전남도의원이 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신청을 두고 자치단체간 갈등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나광국(민주·무안2) 도의원은 광주시가 국제선 임시취항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전남도도와 광주시, 무안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광주공항 국제선 취항 논쟁은 지역간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공항이 국제선을 임시취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와 시설을 언급하며 “무리한 임시취항 논의가 반복되는 건 안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광주시의 국제선 임시취항 추진으로 지역간 갈등의 불씨가 커지기 전에 무안국제공항의 개항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피해는 관광업계와 도민, 참사 피해 유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비롯해 지역 전체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외국 투자 유치 높인다...전남도, 외국 교육기관 설립 연구 용역 착수

전남도가 외국 교육기관 설립으로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지난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기업도시인 ‘솔라시도’(해남)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순천) 내에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국내의 학생 유치를 통한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교육기관은 해외 비영리학교법인이나 국내에 설립·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형태의 교육기관이다. 국제 인증 커리큘럼(IB·AP 등)을 토대로 영어 등 외국어로 수업이 진행된다. 외국인 자녀뿐 아니라 일정 비율의 내국인도 입학이 가능해, 해외 유학 대신 입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 용역은 외국교육기관 설립의 타당성과 운영 모델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주요 내용은 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의 정주 여건과 산업 인프라 분석, 외국인과 내국인 입학 수요 예측, 경제성·정책

성 분석, 도민 의견 수렴 등이다.

전남도는 용역을 통해 외국교육기관 적정 규모, 재원 조달 방안, 위탁운영 전략, 행정절차 대응체계 등 실현 가능한 로드맵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은 글로벌 기업 유치와 지역 인재의 정주를 위한 시설 중 하나”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전남 실정에 맞는 국제학교 모델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교육도시로 도약할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겨울철 일등보양식

청자골 자라양식장 창업 20주년 특별할인

운동선수, 환자 보양식

자라 엑기스 2개월분

① (12kg + 한약재)
② (12kg + 마늘 생강 대추)

70만원 → 60만원 (10만원 할인)

자라 요리 전문(단체모임환영)

자라탕 용봉탕 / 방생자라 판매

청자골 자라 양식장 | 061-434-0067 / 010-3635-3362

강진군 성전면 별미로 297-52